

# “너한테 냄새 나”... 9살 소녀의 사연

###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어머니는 우울증 앓아 최근 가족 상황 알려지며 행정 도움으로 구제 지난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무려 1만6238건

A(9)양은 학교에 갈때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옷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이 공공연히 자신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등 다섯 식구가 사는 집(제주시 소재)이 쓰레기더미로 변하면서다. 부모님이 서로 집안일을 미루면서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가족이나 좁은 집에 대·소변 처리가 되지 않는 대형건까지 키워 악취가 진동한 것이다. 또 화장실과 부엌은 고장이 나 사용을 할 수 없었으며, 가스도 끊겨 휴대용

버너로 조리를 해야 했다. 작년엔 살았던 원룸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돼 쫓겨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집안의 생계는 성인 이 된 언니가 아르바이트로 벌여오는 70여만원이 전부다.

다행히 지난해 5월 A양 가족의 상황이 행정기관에 의해 발견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5개월 동안의 관리가 진행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 행정에서 연결해준 기관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였고, 아버지

는 중독관리상담,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상담·관리를 받고 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B(64)씨는 월세가 6개월 밀리고, 공과금도 미납돼 단전·단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몇년 전 파킨슨병이 발병해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

B씨의 상황은 지난해 4월 제주시에 진행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후 B씨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선정 등이 이뤄졌고 정서적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밀반찬·음료 지원 통한 방문 등이 진행되고 있다. B씨는 현재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늘면서 제주에서

발굴되는 ‘복지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만6238건의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됐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4258건, 긴급복지지원 2046건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행정예에 의해 발굴되는 복지사각지대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365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제주도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검진센터, 가스 점검원, 집배원, 우리동네삼촌돌봄비 등 민간자원과 협력체계를 가동, 위기·취약대상 가구의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지검장 발령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55·사진·사법연수원 26기)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제주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제주지검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 지청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제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왔다. 박 신임 제주지검장은 오는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한편 조재현 제주지검장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상민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여인테 제주청장 구속 면해 유족 “영장 다시 청구해야”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나머지 지휘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양경비과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반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해경 지휘부는) 304명의 국민을 살인했고, 5년 9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 반려동물 불법 진료 동물판매업소 고발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판매업소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주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외약품) 투약(주사) 등 불법 진료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8일 밝혔다.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외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돼 불법 진료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제가 확인됐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기준 제주시 판매 반려동물 영업장은 164개소(2019년 기준)로 제주시는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에 고발 조치해 반려견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돌염전 배경으로 '찰칵' 9일 제주시 에델름 구영리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돌염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상국기자

## 주말 산간·남부지역 비 소식

10일 제주지역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6℃, 낮 최고기온은 9~13℃로 평년보다 1~2℃ 높지만 이날 오전까지 북쪽에서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

혔다. 주말인 11일에는 제주 산간과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1일 오후 9시부터 산지와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2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5~7℃, 낮 최고기온은 9~12℃로 예상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흥기 휘두른 중국인 송치

임금 문제로 다투다 흥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A(3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B(27)씨의 거주지에서 B씨의 등을 한 차례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석기자

## 말다툼 끝에 이웃 살해 70대 징역 20년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 남성에 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45)씨를 흥기로 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골묘목

###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골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앵(무독)·천혜향(무독) 한라봉·탐나는종·황금향 미니향·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골묘목

- \* 유라실생 .....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 궁천 .....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 하례조생 .....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